

“예술은 거창하지 않아요...즐기는 거죠”

신안 '섬&아트 프로젝트' 총괄 한예중 이진식 팀장

“52만5600분의 귀한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그 우정을 기억해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간직해요. 산다는 건 영원히 소중하고 아름답죠.”(뮤지컬 렌트 '시즌 오브 러브' 중)

지난 11일, 신안군 암태도에 자리한 암태중학교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졌다. '섬&아트 아트캠프'의 발표회 현장. 작은 독서실이었지만 처음으로 무대를 접한 13명의 암태중 학생들의 얼굴은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펼쳐보이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발표회가 시작되며 이곳은 공연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서툰지만 자신감 있는 얼굴과 몸짓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렌트' '토요일밤의 열기' '라이온

킹' 등 주요 뮤지컬 넘버를 근사하게 소화해 낸 학생들에게 학부모를 비롯한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아트캠프 총괄팀장인 이진식(41)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공연전시기획 팀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예술을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다”고 말했다. 장르도 영화만들기, 연극, 스토리텔링 등 6개로 세분화했다. 많은 것을 체험할수록 더 많은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처음엔 학생들도 생소해서 '이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야'라고 웅성댔어요. 방과후 활동처럼 예술을 '배우기'만 했던거죠. 예술을 교육이라 생각했던 학생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술을 편하고 일상적인 것이라 생각하더군요.”

처음엔 앞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워 쭈뼛대며 부끄러워하던 학생들도 점점 숨겨둔 끼를 드러냈다. 쉬는 시간이면 담당 강사에게 춤 동작이나 발성을 물어보고 교육이 끝나도 남아 연습을 하기도 했다.

노래와 춤에 관심이 많았다는 암태중 3학년 나은진(16)양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본 건 처음”이라며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학생과 스텝은 모두 함께 뮤지컬 '렌트'의 '시즌 오브 러브'를 부르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5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정이 들었다는 강사와 학생들은 서로 번호를 교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 팀장은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음미하던 아이들의 얼굴에 뭔가 해냈다는 카타르시스에 보였다”며 “이번 계기로 학생들이 예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섬&아트 아트캠프'에 참여한 암태중학교 학생들이 한예중 선생님들에게 뮤지컬 수업을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가장 오른쪽위가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이진식 한예중 팀장.

한편 신안군(군수 박우람)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박종민)는 지난 7일 부터 18일까지 2주간 신안군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에서 '천사섬의 천사들을 위한 아트캠프'를 개최한다.

두 기관의 '섬 & 아트 프로젝트' 첫 사업으로 추진

되는 급반 아트캠프는 신안군 내 3개 섬(암태, 팔금, 안좌)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아름다운 기부 2제

나눔으로 행복 시작...혼수비용 줄여 기부

환경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대표 차성만) 경영지원팀 문동선씨와 신부 김설희씨가 기부결혼식을 올려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문씨 부부는 이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곳에 써 달라”며 혼수비용을 아껴 모은 돈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결혼식이란 결혼 비용을 절약해 기부금을 마련하거나, 축의금을 기부하는 선행을 말한다.

일반인의 기부결혼은 흔치않은데다, 문씨 부부는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기부결혼식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또 문동선씨는 환경다이너스티 '다사랑 나눔회'의 회원으로 봉사활동은 물론,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달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부부는 “멋진 반지보다 더 멋진 나눔으로



우리 가정의 시작을 알리고 싶다”며 “결혼 후에도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

평생 나눔, 아기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광주에 사는 한영현(34)·김수진(28)씨 부부가 첫 출산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눴다.

이들 부부는 이달부터 2009년까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달 2만 원의 기부금을 기부기로 약정했다. 지난해 11월 출산한 채민(1) 양에게 뜻 깊은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다.

이들 부부는 어린 딸이 성인이 돼서 자신들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길 바랐다. 특히 이들 부부는 채민 양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또다시 평생 기부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보훈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김씨는 “최근 뉴스를 자주 접했는데,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눔의 선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알려져려고 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사코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이종희기자 galee@kwangju.co.kr

전남 우정청 '2013 신년 상상력 대화' 개최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12일 KT 광주통합정보센터 대강당에서 우체국 직원 및 가족과 외부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2013 신년 상상력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상상력대화에서는 지난해 전남우정청이 추진한 우체국 문화혁신과 경영성과를 되돌아보고, 2013년 활동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

려졌다. 또 청내 문화예술동호회 주관으로 난타, 통기타, 밴드, 합창단 등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고 우체국 사람들의 추억을 엮은 사진 공모전 전시 행사도 함께 했다.

김병수 청장은 “이번 상상력대화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격려와 고언을 가감 없이 들었다”며 “우체국이 창조적 새 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

“그리운 친정 다녀오세요”

금호타이어 베트남 방문 지원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후원하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난 1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베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금호타이어가 국내 거주중인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10가족(20명)을 선정해 항공권과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15일까지 고향에서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고 호치민시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갖는다.

지난 2008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 모국을 찾지 못한 누이네 김원(한국명 김아연)씨는 “5년 만에 친정에 가 그리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렌다”며 “한국에서 너무 바빠 고향을 찾는 기회가 없었는데 금호타이어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서 정말 감사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신대 최태산 교수 국무총리상

동신대학교 최태산 상담심리학과(전남도 재난심리지원센터장)교수가 재난 심리 지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전남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이재민들을 방문 심리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한국형 재난심리지원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매뉴얼 개발에도 공헌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 신효식 교수 가정교육학회장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신효식 교수가 제13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5년까지 2년이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가정교육 관련 교수와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1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민식(창인전력 대표이사)·김귀례씨 차남 창현군 이용주·김정자씨 장녀 효선양=19일(토) 낮 12시 프라도 호텔 2층(광주시 남구 백운동)

▲김종상(광주 법무사)씨 장남 경국군 이순근씨 장녀 은희양=19일(토) 낮 12시 40분 광주 힐라데이인 호텔 3층 로즈층.

동창동문회

▲복성중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신년회=14일(월) 오후 6시 30분 일송정 062-529-6998.

▲복성중 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신년회=15일(화) 오후 6시 30분 우미추어탕 062-369-1171.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각파

중 회장 간담회(지원장 이달우)=17일(목)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알림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

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클리닉.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두암동 청년회원=두암동에서 거주하시는 참신한 청년회원을 모집 010-8542-3366(홍보국장).

▲한국노후생애대학 6기 학생=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어(여행영어), 한시(한문),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담심리학. 원서접수는 14일(월)~ 2월15일(금)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2646-5023.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작위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커피메니저 채용=35~45세 여성, 전공무관, 초보 및 경력자(동종업

경력자 우대) 행복출발 호남지사(세정아울렛 4층) 062-527-3341, 010-3604-1158.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원봉사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재보합등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자원봉사자 봉사회원 수시 모집(자녀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동구그림 언어학습센터=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검사 평가 월~금(오전 9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남구 대남대로 113(2층) 062-433-5559.

▲벽산테크노(관장 강경철)=유치부·초·중·고·일반부 관원 수시모집, 유치부 대상(4~7세) 유럽식 최신 유아체육프로그램에 의한 관장님지도 차량운행 062-522-9678.

▲피부의 꿈(대표 나 회)=포토관리, 얼굴관리, 특수관리 등 회원 수시모집 르네셀총관점(예약 및 상담 양) 062-465-8802.

부음

▲이부임씨 별세 김병일·병두·원

謹 **상가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故이국행 (남/69세) 子/子婦: 이 승림/나 女/婦: 이수진/박영희 未亡人: 조영애 *복상: 301호 *연락처: 227-4382 *장지: 영락공원	故임백환 (남/63세) 子: 임호정 女/婦: 임정희, 임영/최선애 未亡人: 이효숙 *복상: 401호 *방안: 1월 14일 *장지: 영락공원
故박충주 (여/84세) 子/子婦: 박성근, 황근/박경희 女/婦: 박미숙, 민숙/한인숙 *복상: 402호 *방안: 1월 14일 *장지: 장충장명선영	故이명길 (남/90세) 子/子婦: 이명환/최성림, 유정, 최경진/박영순, 송현/박미란, 수호/박정혜 女: 이영심/경화 *복상: 101호 *방안: 1월 15일 *장지: 영락공원
故박충주 (여/84세) 子/子婦: 송형식/이문식, 정식/양영애, 호남/최경진, 경배/김수미 女/婦: 송정자/김영자, 정희/유민애, 정애/윤영민, 정숙/김순진, 경숙/임영관, 은희/김수남 *복상: 201호 *방안: 1월 15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마음까지 편안함 **孝**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